

사회

# 광주 외국어고 설립 인가

## 시교육청 심의위 대광여고 전환 9대3 의결

### 내년말 신입생 선발...반대의견 새 교육감 조치 관심

광주시교육청이 추진하는 외국어고 설립이 본래도에 올랐다. 광주시교육청은 24일 시교육청에서 특수목적고 지정·운영에 관한 심의위원회를 열고 대광여고의 외국어고 전환이 '적합하다'고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외국어고 없는 유일한 지역인 광주에 오는 2012년 외국어고 설립이 가시화됐다.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한 심의위는 찬반 격론을 거쳐 12명이 투표에 참여, 찬성 9명 반대 3명으로 이같이 의결했다. 심의위원들은 우수 중학생 타 지역 이발현상도 해소되고 광주교육의 질을 한 차원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 이런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투표 결과와는 별도로 학교 운영계획, 교육과정 운영, 입학전형 계획, 시설, 재원확보 방안 등을 면밀히 심사 평가해 교육과학기술부에

외국어고 지정 협의를 요청키로 했다. 교과부가 외교 전환 서류를 검토해 2개월 이내 지정에 동의하면 사실상 외교설립을 위한 행정 절차는 마무리된다. 시교육청은 외교 설립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내년 10월 중순 신입생 선발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외교 설립 절차가 완료되면 대광여고는 학급당 25명 정원에 10학급 규모로 영어(5학급), 중국어(3학급), 일본어(2학급) 과정을 운영하게 된다. 학생선발은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평가하는 '자기주도학습 전형'으로 이뤄진다. 교육청이 위촉한 입학사정관과 교내 입학사정관으로 구성된 입학전형 위원회가 학습계획서·학교장 및 교사추천서·직접 면접을 통해 신입생을 선발할 예정이다. 자기주도학습 전형 1단계에선 영어 성적(2.3학년)과 출결점수를 합산해

모집정원의 1.5~2배수를 선발하게 된다. 사회적 배려대상자도 학년당 50명씩 선발한다. 별기전형은 없다. 그러나 외교 설립을 놓고 오는 11월 7일 취임하는 장휘국 교육감 당선자 측과 전교조 등 일부가 반발하는 등 반대 여론이 외국어고 개교의 마지막 '변수'로 남아있다. 장 당선자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심의위 결정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라며 "취임 뒤 문제를 삼겠다. 교과부에 외교 설립 반대 공문을 보내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 2006년부터 외교 설립을 역점 사업으로 추진해왔고, 일부 사학에서 외교 설립을 신청하기도 했으나 우수교원 확보의 어려움과 경기침체 등으로 번번이 무산됐다. 한편, 올해 초 울산과 강원에서 외교고 개교함에 따라 16개 시도 가운데 외교고 없는 곳은 광주가 유일하며 현재 전국에 33곳이 운영 중이며,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한국 청소년 피임 인식도 세계 최하위권 아·태 25개국 설문

바이엘헬스케어와 아·태피임협의회(APCOC)는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25개국 청소년(15~24세) 5253명을 대상으로 '성(性)과 피임'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한국 청소년의 피임 인식도가 세계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오는 26일 '세계 피임의 날'을 맞아 이뤄진 이번 조사에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활용 가능한 피임법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응답자가 26%로, 전 세계 25개국 청소년들의 평균인 51%에 비해 크게 낮았다. 또 응답자 중 43%는 '나와 내 이성친구에 적합한 피임법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고 답했으며, '피임법을 거의 아무것도 모른다'는 응답도 31%에 달했다.

성관계 경험이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54%가 성관계 시 피임을 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는데, 그 이유로는 '피임 도구가 없어서'(25%), '피임법을 몰라서'(22%) 등의 응답이 많았다. 반면 전 세계 조사 대상 청소년 전체를 놓고 보면 '피임법을 몰라서 피임을 하지 못했다'는 응답은 4%에 그쳐 대조를 보였다. /연합뉴스

## 아내 토막살해 경찰 前부인 행방 묘연

광주서부경찰은 아내를 토막살해한 서부경찰서 모 지구대 김모(57)경위 전처의 행방을 찾기 위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부경찰은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 내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조사를 받고 있는 김모 경위의 전처 문모(당시 37세)씨가 지난 1994년부터 행방이 확인되지 않아 이를 확인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당시 젊은 나이에 자녀까지 있었던 문씨가 행적이 파악되지 않고

있는 만큼 범의 관련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문씨가 행방불명됐지만, 건강보험, 통화내역, 금융거래 등에 행방의 단서가 있을 것으로 관련 기록에서 문씨의 행적을 찾는데 주력하고 있다. 김 경위와 지난 1975년 결혼해 아들 2명을 둔 문씨는 1994년 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해 6월 이혼했고, 7월 주민등록이 직권 말소됐다. 김 경위는 문씨의 주민등록이 말소된 지 13일 만에 이번에 살해한 백모

(43)씨와 혼인신고를 했다. 경찰은 현재 38세, 35세인 아들이 당시 20살 안팎이었던 만큼 당시 상황과 어머니의 행적 등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김 경위는 지난 20일 오후 경찰서 유치장 화장실에서 자살을 시도해 뇌사 상태에 빠져 있으며, 경찰은 김 경위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 나원침 (8126) 김종두



## 승용차 저수지 빠져 30대女 숨진채 발견

24일 오후 2시 40분경 무안군 봉탄면 감둔 저수지에서 빨간색 엘리트라 승용차가 물에 빠진 것을 낚시꾼이 발견, 119에 신고했다. 가라앉은 승용차 안에는 이모(여·39)씨가 운전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목격자와 유족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서부취재본부=김민준기자 jun@

## 아반디아 등 15개 약품 식약청 조제·사용 중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4일 심장박조와 뇌졸중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진 당뇨병치료제인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아반디아(성분명: 로시글리타존) 등 15개 품목에 대해 처방·조제 등 국내 사용을 중지시킨다고 밝혔다. 이번에 사용중지가 권고된 품목은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아반디아정 3종, 아반디아메트 4종, 아반디아릴정 3종, 로시타존정 1종,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의 아미반정 3종, 유한양행의 아반디아정 1종이다. /연합뉴스

## 내년 중등교원 신규임용 광주 143명·전남 121명

내년도 광주·전남 중등교원 임용 인원이 크게 늘어난다. 광주시 교육청은 24일 "내년에 임용할 중등교사 인원은 모두 143명으로 올해 54명에서 89명 늘었다"고 밝혔다. 전남도 교육청도 이날 올해보다 56명 증가한 121명을 뽑기로 했다. 광주시 교육청에서는 국·영·수 등 주요과목의 임용인원이 크게 증가했다. 국어·수학 인원이 지난해 6명에서 각각 26명으로, 영어는 6명에서 20명으로 늘었다. 지난해 채용이 없었던 도덕윤리(3명)·한문(2명)·중국어(2명) 과목도 신규 인원을 뽑는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전남도 교육청의 임용인원은 국어 25명·수학 16명·화학 5명·생물 5명·지구과학 3명·체육 9명·음악 6명·영어 18·보건 16명·특수 12명 등이다. 교육청 관계자들은 표면적으로 채용 인원은 늘었지만,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전했다. 광주시의 경우 지난해 전입인원(130명) 때문에 신규 채용이 줄었으나, 올해 예년 수준으로 전환됐다. 전남도 교육청도 지난해 인력감축 계획에 따라 채용규모를 줄였으나, 내년도 인력 수요를 감안해 신규 채용을 늘렸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24일 광주시 남구 한 병원에 추석연휴 뒤 급증한 소아 감기 환자들이 복새통을 이루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환절기 감기·눈병 기승

### 장염·몸살 등 명절 후유증 환자 겹쳐 병원마다 복새통

추석연휴가 끝나고 병원을 찾는 감기와 눈병 등 '계절성 질병'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24일 광주지역 병·의원에 따르면 지난 18일부터 시작된 추석 연휴가 막바지에 이르자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크게 늘었다. 광주 남구 한 소아전문의병원의 경우, 환자들이 진료를 위해 1시간씩 대기하는 등 병원마다 복새통을 이루고 있다. 이는 지난 22일부터 갑작스레 쌀쌀해진 날씨에 미열과 몸살 등 감기 증세를 보이는 소아들이 증가한데 최근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유행중인 아

데노바이러스 감기 환자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추석 연휴 때 고향을 찾거나 외지를 방문했던 사람들에게서 장염과 몸살 등 '명절 후유증' 증세도 많이 발견돼 성인 환자 역시 평소보다 30% 이상 증가했다. 광주 서구 내방동 오모(36)씨는 "10개월 된 아들이 연휴 뒤 감기 증세를 보여 병원을 찾았으나 30여명씩 대기해 있는 것을 보고 3곳의 병원을 돌아 겨우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며 "병원마다 성인과 소아환자들이 가득 차 있었다"고 말했다.

이달 초부터 유행한 유행성 각결막염과 알레르기성 결막염도 한 달이 지나도록 광주·전남에서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24일 광주시는 지난 13~17일 시내 안과 전문병원 표본감시 의료기관 4곳에 대한 눈병 환자 모니터링 결과, 병원당 하루 평균 60명의 환자가 찾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광주 A 안과의 경우 9월 초 10명 내외이던 결막염 환자가 지난 20일에는 30명이 넘었고 추석 연휴가 끝난 24일에도 50명의 환자가 찾아왔으며 광주의 B 안과도 추석 연휴 직전 약 50명이던 환자 수가 24일 두 배 가량 늘었다. 특히 추석 성묘 후 눈에 들어간 이물질과 농작물 등으로 인해 환자가 2배 가량 늘었으며 전남지역 일부 학교는 현재 격리수업까지 진행하고 있다. 광주 남구 미래아동병원 김병희 원장은 "환절기 일교차가 심해지면서 체온 조절이 안돼 감기나 장염 증세 등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늘었다"고 말했다. /임동훈기자 exian@kwangju.co.kr

## 원산지 표시 위반업소 88곳 적발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64곳 입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24일 추석 제수용품과 선물 제조업체, 백화점, 마트, 시장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집중단속을 펼쳐 위반업소 88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전남농관원은 적발된 업소 88곳 가운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64개 업소는 형사입건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24곳은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광주시의 A식육점은 미국산 쇠고기 75kg을 국내산 한우로 속여 팔다 적발됐고, B업체는 수입산 옥수수 전분을 원료로 제조한 물엿을 사들여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목포의 한 청과업체는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배를 나주산으로 인쇄된 상자에 넣어 팔다 적발됐고 여수의 한 식당은 중국산 배추김치 1400kg을 국내산으로 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는 지난해에 비해 크게 줄었지만, 수입농산물과 가격 차이가 큰 육류나 배추김치의 원산지 거짓 표시 사례는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유통신고 1588-8112, www.naqs.go.kr)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 개봉 할당 지난 안약 쓰지 마세요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유행성 눈병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안약의 올바른 사용법을 안내한다고 24일 밝혔다.

식약청은 먼저 안약을 넣을 때, 오염된 용기에 닿아 눈이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용기의 입구가 직접 눈에 닿지 않도록 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안약을 사용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두 가지 이상의 안약을 동시에 투여할 때, 약물의 충분한 흡수를 돕고 상호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 5~10분 이상의 간격을 두는 것이 좋다. 이와함께 오염 방지를 위해 개봉 후 한 달이 넘으면, 남은 액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자세한 내용은 복약정보방(www.medications.go.kr)의 '약물형태별 사용법(점안액)'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

## '스폰서 검사' 의혹 수사 28일까지 기소여부 결정

'스폰서 검사' 의혹을 수사중인 민경식 특별검사팀은 28일 최종수사발표 때까지 전·현직 검사들의 기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준 특검보는 24일 "기소 검토 대상 전·현직 검사 각각에 대해 기소안·불기소안을 모두 만들어 민 특검이 검토하고 있다"며 "최종 기소는 민 특검이 결정해 28일 오전 10시30분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 카드 몰다 승객 다치게 한 캐디 유죄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4일 카드운전 부주의로 승객이 떨어져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허모(여·45) 씨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재판부는 "골프카트는 안전벨트나 좌우 문이 없이 개방돼 승객이 떨어져 사고를 당할 위험이 커, 운전자는 출발 전에 승객들에게 안전 손잡이를 잡도록 알리고 이를 확인한 뒤 출발해야 하며 좌·우회전을 하는 경우 충분히 서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시. ○허씨는 2007년 7월 경기도내 한 골프장에서 이모(53) 씨 등을 카트에 태우고 가면서 커브길에서 우회전하다 이씨를 떨어지게 해 전치 6주의 두개골 골절상 등을 입힌 혐의로 기소. /연합뉴스

**오늘 날씨** 해돋이 06시 22분 해질 18시 26분 달돋이 19시 00분 달짐 07시 55분

**쌀쌀한 새벽 공기** 오전에는 대체로 맑겠고, 오후부터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다.

구분	구름점차량아침	낮	밤
광주	15/25°C	16/24°C	18/23°C
목포	16/25°C	17/24°C	19/23°C
여수	16/25°C	17/24°C	19/23°C
완도	16/25°C	17/24°C	19/23°C
구례	12/25°C	14/25°C	14/25°C
해남	14/25°C	14/25°C	14/25°C
장흥	14/25°C	14/25°C	14/25°C
고흥	14/25°C	14/25°C	14/25°C
순천	12/24°C	15/25°C	13/25°C
영광	12/24°C	15/25°C	13/25°C
진도	13/25°C	13/25°C	11/22°C
남원	13/25°C	13/25°C	11/22°C
축산도	18/22°C		

지역	풍향	파고	지외선지수	식독독지수	불쾌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북~북동	0.5~1.5m	☀	🍌	☹
서해 북부 앞바다	북~북동	1.0~2.0m	☀	🍌	☹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	1.5~2.5m	☀	🍌	☹
남해 동부 앞바다	북동~동	2.0~3.0m	☀	🍌	☹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26(일)	27(월)	28(화)	29(수)	30(목)	01(금)
날씨	☀	☁	☀	☀	☀	☀
최저/최고	16/24	15/25	15/25	15/25	15/25	16/24

2500만 고객을 위한 블록buster 카드

**Touch 1 카드 출시!**

나라의 반을 움직일 카드, 고객이라면 이제 지급 속에 하나SK카드 하나만

한번에 50% 할인 / 월별 2회 무료 / 주, 월, 연 2회 할인 / 학원 매달 1만원

하나SK카드

5427 0728 5678 7032

HANASK KIM SHIN YONG